

보도자료



보도분류	브리핑() 보도자료 제공(✓)
보도일시	2023. 1. 10.(화)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작성과	서비스산업유치과
담당	과장 안도현, 담당 김성수, 최수연(032-453-7343, 7344)

IFEZ, 문화·관광도시로 도약...글로벌 기업과 엔터테인먼트·미디어아트 등 상호협력

김진용 인천경제청장, 미디어아트 활용 등 관련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 세계 최대 규모 전시회(CES) 찾아 신규 투자유치도 논의, 전시 참여기업 관계자 격려

-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미국 해외 투자유치 출장에 나선 김진용 청장이 지난 6일(현지시간) 라스베이거스에서 다양한 프로젝트 참여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미디어아트 이벤트 전문 기업인 ITDP(Image That Design & Production)社와 상호협력 의향서(LOC: Letter of Cooperation)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.
- 김청장은 릭 하버(Rick Harbour) 회장을 직접 만나 의향서를 체결했으며 인천경제자유구역(IFEZ) 내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구조물과 시설 및 야간 경관 고도화를 위한 엔터테인먼트 쇼 개발 등을 위해 상호협력을 의논해 나가기로 했다.
- 김청장은 이어 지난 7일(현지시간) 라스베이거스에서 가전제품, 정보통신기술(ICT), 콘텐츠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 세계 최대 규모의 전시회인 ‘CES(Consumer Electronics Show : 소비자 가전 전시회) 2023’에 참석, IT, CT, 게임산업 특화기업들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트렌드에 걸 맞는 콘텐츠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 발굴과 네트워크 확대에 전력을 기울였다.
 - 사례: 실시간 홀로그램, AR·VR 연계 3차원 디스플레이 게임 등

- 또 그는 CES에 참여한 인천 스타트업파크 입주기업 및 인천시 참여기업 등의 전시공간을 찾아 노고를 격려하고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협의했다.
- 한편 인천을 동북아 관광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인 영종 복합 리조트 집적화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MICE, 관광산업의 본고장인 라스베이거스 내 글로벌 복합리조트 A, B社 등을 방문해 IFEZ 내 투자기회를 적극 설명,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투자유치와 경제자유구역 콘텐츠의 질적인 성장을 위해 전념하고 있다.
- 더불어 세계적인 미디어 콘텐츠 글로벌 기업인 C, D社 임원진과의 면담을 통해 미디어·문화 콘텐츠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인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요청했다.
- 나아가 금번 출장 일정 중에 미주한인회총연합회 김병직 총회장과 교민들을 만나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. 이 자리에서 김병직 총회장은 “재외동포청은 공항, 항만이 가까운 국제도시 인천에 들어서야 재외동포들의 입출국 시 접근성이 편리하며 실질적인 비즈니스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.”며 교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인천시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견을 밝혔다.
- 김청장은 “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은 IFEZ와 관련한 엔터테인먼트·관광상품 개발에 서로 힘을 합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”며 “앞으로 이를 구체화해 IFEZ의 문화·관광 콘텐츠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 또한 미주한인회총연합회의 적극적인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는 큰 의미가 있으며, 앞으로 여러 지역의 교민들과 소통하여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가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